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양극화 주변으로 내몰리는 한국 제조업...“정부는 뒷집만 지고 있다”
(’18. 6. 7,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- 중국은 700페이지가 넘는 제조업 로드맵을 발표한 반면, 한국은 범부처 제조업 육성정책 없이 5페이지 ‘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’을 내놓은 것이 전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재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’17.12월 「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」 등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
- 이후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13건, 200여 페이지가 넘는 제조업·지능형 발전전략,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

< 제조업 관련 주요 발표 정책 >

	정책	일정	분량		정책	일정	분량
1	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	’17.11	35	8	반도체·DP 산업 정책방향	’18.2	20
2	신산업 표준화로드맵	’17.12		9	바이오·헬스산업 발전전략	’18.2	24
3	재생에너지 3020	’17.12	12	10	IoT가전산업 발전전략	’18.3	17
4	미래차 산업 발전전략	’18.2	13	11	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	’18.3	13
5	중견기업 비전2280	’18.2	17	12	조선산업 발전전략	’18.4	28
6	화학산업 발전전략	’18.2	23	13	뿌리산업 일자리 조성방안	’18.5	14
7	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	’18.2	18				

- 아울러, 지난 5.11일 「산업혁신 2020 플랫폼」을 통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합동 투자 및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여 ’18~’22년간 160조원 투자,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한 바 있음
- 앞으로도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수립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김완기 과 장(044-203-4210)
우성훈 서기관(044-203-4211)